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40)

순례자

발행인: 이종운
편집인: 나희주
편집주간: 원필현
발행처: 서울 장로교회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517-7651~5
FAX: 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 내일 개강

—온 성도는 함께 기도와 봉사를 통해 갱신운동 동참해야—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반드시 갱신되어야 한다. 교회가 갱신되기 위해서는 강단이 거둬야 한다고 뜻있는 교계 인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갱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외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과감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차제에 서울교회가 한국 교회 갱신을 기치를 드높히 세우고 교회 설립과 더불어 매년 2회씩 경향각지의 현역 목회자를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갱신의 기초를 마련해 가고 있다. 내일부터 10주간에 걸쳐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이번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는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라는 주제하에 2000년대를 향한 한국 교회 목회 모델이 될 9명의 국내·외 목회자를 선정하여 연구한 논문이 권위있는 석학들에 의해 직접 발표되고 서울교회 이종운목사의 『성경적 교회 성장 원리』가 10주에 걸쳐 계속 강의되는등 벌써부터 교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나친 물량주의로 인한 각종 불협화음, 기복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

는 복음, 카리스마적 교권주의등 종잡을 수 없는 혼돈과 방향없이 흔들리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참으로 성경적인 목회의 방향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시할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한국교회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목사님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국내목회자는 물론 스펀전(CH. Spurgeon), 윌헬드(C. Whiefield), 피니(C.G. Finney), 물러(G. Muller), 번안(J. Bunyan)등 기독교 역사상 길이 빛날 인물들의 목회를 심도있게 파헤쳐서 암울한 조국의 목회 현실을 밝히는 햇불이 되고자 하는 뜻있는 목회자의 동참으로 대성황을 이루었으면 하는 것이 그동안 헌신적인 봉사와 끊임없는 기도로 준비해온 한국교회갱신연구원과 서울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자신이 갱신되지 않고, 우리 교회의 갱신없이 한국 교회의 갱신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교사 체육대회 연다

- 10월 16일(토) -

우리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에서는 오는 10월 16일(토)에 교육부 전 교사들간의 일치와 친교를 위한 교사 체육대회를 갖기로 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는 총 11개 부서 263명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부서간 교사들이 함께 한 교회안에서 봉사하고 있으면서도 함께 교제하는 일은 어려운 현실이었다. 서로를 알고,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며, 힘을 합하여 배우고, 참교

육을 감당하고자하는 생각들이 모아져 교사 체육대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각부 부감들로 구성된 준비위원들은 오늘(12일) 오후 2시에 유년부 교사실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기로 했다. 더우기 교사 모두가 정성으로 준비한 교사 체육대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값지게 보낼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기대한다.

소망부 개교 1주년

감사예배

소망부(부장: 임광식 장로)는 지난 9월 5일 당회장 이종운 목사를 비롯하여 전 당회원의 축하속에 개교 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참석자 모두는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으며, 특별히 이종운 목사의 말씀은 소망부 학생들에게 큰 위로와 사명을 주었다. 더불어 1년간 개근한 학생들에게는 부상을 시상하고 참석한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전달했다.

지난 1년동안 소망부는 찬송가 경연대회, 성경 암송대회, 그리고 신앙간증 발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하여 착실하게 성장 발전하여 현재 학생 56명, 교사 24명 총 80명이 매주 지하 1층 예배실에서 1부 예배 후 12시 40분부터 모임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혁명을 좋아한다.

정말 변해야 할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아의 혁명. 속사람의 갱신인 것이다.



창세기강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2 : 8~17)

에덴동산

이종윤 목사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창세기에 기록해 주신 것은 창세기 기사가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성이 있는 것임을 더욱 확실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동산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아울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만일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가 역사적인 장소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성이 결여될 것입니다. 인간 타락이 역사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역사속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1. 동방의 에덴

예수님께서 “모세가 기록하기를”하고 모세의 글에서 말씀을 인용하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모세5경을 모세의 기록으로 받고 있습니다. 모세5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을 향해서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동안에 기록된 것입니다.

동방의 에덴은 모세가 모세5경을 기록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산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곳은 알 수 없지만 아라비아 사막 건너편 북쪽으로 있는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강 골짜기의 어떤 지역이 에덴동산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14절을 보면 네개의 강 이름(비손, 기혼, 히테겔, 유브라데스)이 나와 있는데 모두가 에덴에서 부터 흘러나온 강입니다.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가 마지막에 가서 합쳐지고 비손과 기혼강이 또 하나 합쳐져서 홍해로 빠져 나갔다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만

그런 강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비손강변에는 하월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금과 진주와 호마노가 있는 땅이고 기혼강변에는 구스땅,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가 있는 곳으로 모세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덴동산 일대를 다 알고서 모세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 타락 기사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금하셨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동산

(1) 아름다운 동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9절) 에덴동산은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창1:3, 10, 12, 18, 21, 25, 31절에서 7번이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보기에 좋다는 말은 눈으로 보기만 좋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기 때문에 에덴동산은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2) 유용한 동산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2:9)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만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에덴동산은 보기에 아름답고 유용한 동산이었습니다.

(3) 책임수행의 동산

에덴동산은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따라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잘 준비된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책임을 주셨습니다. 흠으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땅과 세상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생기로 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책임을 다 이루는 것이 에덴동산에서 인간이 받은 사명입니다.

3. 두 개의 동산

에덴동산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개의 동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에덴동산과 신약에 나타난 둘째 아담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갓세마네 동산입니다.

(1) 에덴의 불순종과 갓세마네의 순종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1:26)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를 주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명까지 받았는데도 아담은 자기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되신 예수님은 갓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찾으셨습니다. 그런고로 첫째 아담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지만 둘째 아담을 통하여는 회복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2) 사탄과 대화와 하나님과 대화

첫째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사탄과 대화를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깨끗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말에 넘어가서 사탄과 대화를 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대화하는 일은 무조건 끊어버려야 합니다. 사탄의 말은 처음부터 듣지를

말아야지 들으면 자꾸 마음에 남아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근심과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갓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3) 아담의 실패와 그리스도의 승리

아담은 금단의 열매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이겨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앞에서 끈고한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에 피땀 흘려 기도 할 수 있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결과로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리스도는 갓세마네동산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새 길을 여시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이 아담으로부터 오게 되고 의와 생명과 왕권, 천국이 둘째 아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오시는 것이 롬 5:12~21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앞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옛 동산에 머무거리지 말고 갓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 하신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가족부 소식

새가족에서 한가족으로

지난 9월 9일(목) 교회 2층에서 지난 5월 세째주부터 9월 첫주까지 등록한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새가족 환영회가 열렸다.

3부로 진행된 이번 환영회는 이종운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 장로, 지역장, 다락방장 그리고 새가족과 인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은혜와 감사, 그리고 기쁨이 충만 한 시간을 가졌다.

이종운 목사님은 환영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우리교회 평생 표어와 「하나님 앞에서」라는 93년도 교회표어 아래, 생활지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유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상을 제시하면서 서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며, 떠돌다가는 손님이 아니라 서울교회를 책임지는 성도로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부 순서는 친교시간으로 새가족부 교사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은혜스럽게 교구별로 앉아 정담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무르익게 했다.

식사후 3부 순서에는 간증의 시간이 있었는데,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확신과 생활의 참 변화를 가져다 주었던 간증을 하고자 했던 새가족들이 많았으나 제약된 시간때문에 7사람에게만 간증의 기회가 돌아갔다.

첫번째로 나온 L형제는 4년전

부터 당자의 생활을 했던 것을 회개하며 다시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했으며, K성도(4교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때에도 가정과 축복된 환경을 주심을 감사한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했고, M성도(3교구)는 마취없이 12시간 동안 심장수술을 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

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때를 고백하고, 이종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정적으로 서울교회를 섬길 것을 결정했으며, 지난 수련회를 통하여 살아있는 교회임을 실감했다고 증거했다.

S·L부부(4교구)는 남편인 S성도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완루한 성격의 소유자인 L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가정적 문제를 기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K.P 부부(1교구)는 남편의 투병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했고 교회건축을 위한 하나님과의 기도약속이 응답되어 더욱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C형제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겠다고 자랑을 하였다.

김대호 집사님의 사회로 진행된 새가족 환영회는 모두가 서울교회안에 한 가족임을 확인하면서 기쁨의 인사를 나누며 가정으로 발걸음 옮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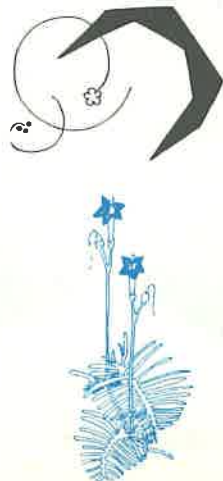


봉사자의 영광

—존 휘티어—

청년 시절 뒤를 돌아보는 자
흘러가 버린 덧없는 시간들이 보이는가?
지난 날 심었던 죽음의 나무 그늘
죄악의 그늘에서 불어오는
책망의 바람소리 들리지 않는가?
그래서 지난 시절 되돌아 봄에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자
그가 비록 나약하고 약했다 하더라도
약간은 고귀한 이유에서
이웃을 찬미하고 도와 주었다면

버림받은 자들을 감싸 주며
죄악의 구렁텅이에 한줄기 빛을 비추었다면
빈곤한 때에 주님과 집이 없이 고통받는 자
그들을 도와 주고 또 하려 하였다면
그는 헛되이 산 것은 아니며
그를 찬양하는 이들 속에 살아 움직일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회상하며
이전의 소망 속에 이젠 다시 할 수 없는
그가 한 봉사의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순례자칼럼

21세기를 내다보는 교계의 비전

이영렬 집사

세계사에 비쳐진 기독교계의 기록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더불어 21세기를 앞에 두고 뜻있는 많은 성도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한다.

기독교의 본거지인 이스라엘의 오늘과 기독교의 상징처럼 되어 있던 유럽의 현실, 청교도의 기치를 내걸고 건설된 미국의 오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의 2대 기적은 종교의 기적과 경제의 기적이라고 한다. 종교의 기적중에도 기독교의 양적 성장을 들고 있으며 이것은 20세기 기네스북이 무색할 정도로 세계사적인 대사건이 되어졌다. 물론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너무나 사랑해주시는 산 정표요, 그야말로 일곱 축대의 한국으로의 이전이다.

이러한 결과를 누가 부인하겠는가? 다만 문제는 21세기를 향해가는 건널목에서 이래도 좋은가 하는 것이다. 막스 웨버의 주장처럼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맹점은 청교도적인 기독교적 신앙에서 요구하는 청교도적인 생활이 뒤따르지 못할때 자본주의가 파멸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로마의 최후가 그렇고, 폼페이 최후와 고모라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부의 소유 자체가 무슨 죄인가? 그것은 정말로 축복할 일이다. 단지 그 방법이 정당했으며 그 부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사명이다. 교회의 양적 성장 자체가 문제될 것이 있겠는가? 문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적 성장을 고집하고 그래서 순수함이 사라진 극히 제한적이고 삭막한 형식으로 변질되어 목적과 방법이 전도되는데 문제가 있다. 몇 몇 사람들만으로 자기들이 아니면 안되는 것 같은 독선적 타성에 빠져버린 교회 운영은 이미 교회로써의 그 본질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신앙적이란 편의

적 해석을 통해 모든것을 자기 합리화를 위한 이어령 비어령식의 해석과 적용으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한국성도의 신앙적 수준은 이미 그 수준을 훨씬 넘은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21세기를 바라보는 교계의 비전은 과거 마르틴 루터가 가졌던 종교개혁이 오늘의 뒤안길에서 어떻게 재조명 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필연적 대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상의 변화를 요구함에도 구태의연한 족벌운영과 밀실운영을 통해 기독교를 다지고 못 성도들의 눈을 가리려는 소위 세속적 대중주의 우매성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파시스트적인 위선적 작태의 순수하지 못한 교회의 흐름이 계속될때 과거보다 더 엄청난 종교개혁이 하나님에 의해 이뤄질지도 모른다. 김일성 부자세습 체제를 맹렬히 비난하는 어느 목회자가 오히려 자기의 경우는 교회 운영의 부자 세습을 노골화로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 한다면 이것은 세대의 아이로니와 함께 실로 그것은 위선이요 꾀변이며 허구이다. 한국교회의 본을 모아야할 상당수의 대교회와 전통교회가 오히려 중세기 종교개혁 당시가 무색할 정도로 더 세속화 되어간다는 탄식이 들려올때 하나님이 원하는 21세기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 실현시켜 주시겠는가? 좀더 진지하게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는 참성도의 순수함을 하나님은 더욱 높이 살 것이다.

가장 본을 보여야할 한국 교계가 목적과 수단이 전도 된듯한 세속적 타락이 계속되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무색해질 수밖에 더 있는가?

이제 우리는 허와 실을 바라보면서 21세기의 교회의 참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참회개와 실천이 따르는 참용광로를 만들어 우리 모두가 용해되자.

◆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 ◆

주제 : 목회자의 경건과 설교

- 2000년대를 향한 한국교회 목회 모델 -

- 기간 : 1993년 9월 13일 - 11월 15일 (10주간)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20분
- 장소 : 강남 YMCA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5-6) ☎ 547-0817
- 수강대상 : 전국의 목회자
- 등록금 : 한 학기 (10주)에 만원
-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서울장로교회사무국)
135-010 강남구 논현동 165-18 서울강남우체국 사서함 212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9월

학습 세례식 안내

- 9월 22일 수요일예배시 수세 -

우리교회는 오는 9월 22일 부에서 학습·세례 문답신청서를 (수)에 수요일 I·II부 예배시간 기록하여 제출한후 20일(월)의 을 통하여 학습 및 세례식을 갖는 예비 교육과 21일(화)의 신앙문답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많은 학습·세례 희망자들은 새가족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예배당을 짓게 하소서.
2.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의 개강과 목회자들의 참여를 위하여
3. 체코의 파블레 체프 선교사의 사역을 위하여

■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일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 교회약도

